

뉴스홈 | 최신기사

# '3년 5개월' 최장수 벤투의 독심, 태극전사 맞춤형 입히다

송고시간 | 2022-02-02 00:56



안홍석 기자

기자 페이지



벤투 감독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안홍석 기자 = 파울루 벤투(53) 한국 축구 대표팀 감독이 '독심'으로 2022 카타르 월드컵 본선행을 이뤄냈다.

한국은 1일(한국시간)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의 라시드 스타디움에서 치러진 시리아와의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 최종예선 조별리그 A조 8차전 원정 경기에서 2-0으로 승리했다.

이로써 한국은 10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의 대업을 이뤄냈다.



벤투 감독은 2018 러시아 월드컵 뒤인 2018년 8월 22일 대표팀 사령탑으로 부임했다.

벤투호는 첫발을 순조롭게 뒀다.

2018년 9월 7일 코스타리카와 평가전(2-0 승)을 시작으로 이듬해 1월 25일 카타르와의 2022 아시안컵 8강전에서 0-1로 지기 전까지 11경기 무패(7승 4무)를 내달렸다.



1010회  
모든 댓글 열람

## 핫뉴스 →

박진, 광우병 사태 때 美당국자에 "한국에 너  
무 많은 민주주의"

한국 유튜브, 촬영 중 실수로 우크라 국경 넘었  
다 귀환

프로야구 LG-SSG전 오심 내린 심판, 2군 강  
등 징계

"마지막 순간 마음 바꿨다" 2015년 파리 테러  
범이 밝힌 '그날'...

'음주측정 거부-경찰관 폭행' 래퍼 장용준 1심 실...

'가짜 여성계정 운영 의혹' 소개팅앱 내부고발...권익...

박찬욱, 칸 초청에 "기쁜 볼스식...오래 기립박수 칠...

반려견도 육식보다는 채식이 더 건강하고 덜 위험해



가족찾기 사연 보러가기





대화하는 벤투 감독  
[연합뉴스 자료사진]

2019년 3월 26일에는 남미의 강호 콜롬비아를 서울로 불러들여 2-1 승리를 거두기도 했다.

하지만, 여론은 벤투 감독에게 우호적이지 않았다.

벤투 감독은 어떤 상대를 맞아도 볼 점유율을 유지하며 후방부터 차근차근 공격 전개를 해 나가는 이른바 '빌드업 축구'를 고수했다.

'깜짝 발탁'으로 팬들을 즐겁게 하는 일이 드물었다. 소집 명단이 발표될 때마다 일부 축구인들 사이에서는 '그 나물에 그 밥'이라는 볼멘소리가 나왔다.

많은 팬과 전문가들이 벤투 감독이 전술적으로 유연하지 못하고, 선수를 너무 보수적으로 선발한다고 비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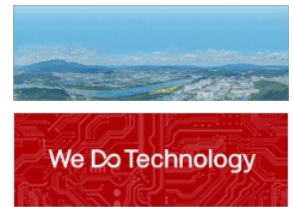


경기 지켜보는 벤투 감독  
[연합뉴스 자료사진]

벤투 감독이 부임 1천15일째를 맞은 지난해 6월 1일 울리 슈틸리케 전 감독을 넘어 한국 축구 역대 '최장수 감독'으로 등극했을 때 분위기가 뜨뜻미지근했던 것도 같은 이유에서였다.

지난해 3월 한일전에서 0-3 참패를 당한 것은 벤투 감독에게 치명타나 마찬가지였다.

9월 홈에서 열린 카타르 월드컵 최종예선 첫 두 경기에서 출전 끝에 1승 1무(1차전 이라크와 0-0 무승부·2차전 레바논



## 에디터스 픽 Editor's Picks

- 영상

▶ 01:59

[영상] 윤석열, 안철수 '패상' 질문에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

- 뉴스

尹당선인 安위원장 만찬 회동... "공동정부 한치의 흔들림 없어"

모임·영양·행사 제한 등 거리두기 완전 해제... 마스크는 '유지'

에 1-0 승)에 그치자 본선 진출을 위해서는 벤투 감독을 조기에 경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왔다.

하지만 벤투 감독은 흔들리지 않고 제 갈 길만 갔다.

최종에선 경기를 거듭할수록 빌드업 축구는 완성도를 높여갔다.

과감한 패스가 강점인 황인범(카잔)과 안정적으로 볼을 배급하는 정우영(알사드)의 중원 조합이 잘 자리 잡으면서 너무 느리다는 지적을 받던 공격 전개 속도가 눈에 띄게 빨라졌다.



레바논 도착한 벤투 감독  
[연합뉴스 자료사진]

면면에 큰 변화가 없어 서로를 잘 아는 선수들의 패스 플레이는 점점 더 유기적인 흐름을 보였다.

벤투호는 지난해 10월 12일 강호 이란과의 원정 4차전에서 1-1 무승부를 거두며 반전을 이뤄내더니 이라크와 원정 6차전에서 3-0 대승을 올려 본선 진출의 8부 능선을 일찍 넘었다.

빌드업 축구가 자리 잡자 벤투 감독은 자신의 축구를 소화할 '인재 풀'의 외연을 확장해가기 시작했다.

이번 중동 2연전에 앞서 해외파 없이 치른 터키 전지 훈련에서 국내파 새 얼굴들을 점검했다.

대표팀에 처음 뽑혔거나 잘 활용되지 않던 김진규(부산), 백승호(전북), 김건희(수원) 등이 인상적인 활약을 펼쳐 기대감을 끌어올렸다.



지시하는 벤투 감독

검수완박에 청문정국 '한동훈 블랙홀'까지...여야 끝장대치 예고

1년5개월 만에 전국 평검사회의... '검수완박 대응' 논의

기준금리 1.25→1.50% 또 인상...4%대 인플레 '불 끄기'

#### 댓글 많은 뉴스

- 1 김건희 여사 팬카페, '악성 댓글' 누리꾼들 검  
찰에 고발  
132
- 2 정호영 자녀, 경북의대 편입전 아버지 있던 경북  
대병원 자원봉사  
59
- 3 '유퀴즈'尹당선인 출연 논란..."프로그램 취지와  
안 맞아"(종합)  
51
- 4 두문불출 이재명, 이발·염색...조기등판론 속 활  
동재개 예일?  
41
- 5 문대통령, 손석희와 대담...靑 "임기 5년 소회 밝  
힐 예정"  
34

뭐하고 놀까? #홍콩 →

결과에 경기 내용까지 다 잡아내면서 벤투 축구에 대한 비판은 사그라드는 분위기다.

벤투 감독은 2일로 취임 1천261일째를 맞았다. 만 3년 5개월간 '독삼'으로 본선 진출이라는 결과에 팬심까지 잡아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4강 신화 이후 한 감독이 예선 시작부터 본선까지 대표팀을 이끈 사례는 없었다. 그래서 한국 대표팀 감독직은 '독이 든 성배'로 불렸다.

예선부터 본선까지 책임진 가장 최근 사례인 차범근 전 감독이다. 차 전 감독은 1차 예선이 시작되기 한 달 전에 지휘봉을 잡고 1년 5개월 동안 팀을 이끌었다.

벤투 감독의 재임 기간은 그 두 배를 훌쩍 넘긴다.

태극전사들은 역대 가장 안정적인 리더십 아래 월드컵 본선을 향해 진군하고 있다.

ahs@yna.co.kr

관련기사	'태극전사 맞춤형' 벤투호 빌드업 축구...카타르에서 통할까
	황의조·조규성 투입, 시리아전서도 가동...백승호 선발
	이동경, 독일 살게로 임대 이적...완전 이적 옵션 포함
	'중원 지휘자' 황인범 "선수 한 명 없다고 무너지지 않아"
	'월드컵 본선행 눈앞' 벤투 감독 "홍철 위해 승리 노릴 것"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2/02/02 00:56 송고

#벤투 #월드컵 #카타르

당신이 함께 보면 좋은 콘텐츠

당신이 좋아할 만한 콘텐츠

현장 영상 →

▶ 01:18

[영상] 입발 목인채 두 눈만 말뚝뚝...누가 학대했나

▶ 02:22

[영상] 곡사포·수송헬기·장갑차...美, 꺼렸던 무기들  
결국 우크라이나

[영상] 미국 최고위급 키이우 방위  
링크 등 후보군"

당신이 함께 보면 좋은 영상

유튜브 채널



SNS



뉴스홈 최신기사 정치 북한 경제 산업 사회 전국 세계 문화 라이프 연예 스포츠 오피니언 사람들

비주얼뉴스 영상 포토 화보 #D 그래픽

테마별뉴스 핫뉴스 톱뉴스 주요뉴스 긴급뉴스 단독뉴스 많이본뉴스

뉴스+ 이슈돋보기 팩트체크 재난포털 날씨 주요신문 톱뉴스사설 이시각 헤드라인

모바일 뉴스 모바일웹 모바일앱

외국어 English 中文 日本語 عربي Español Français

뉴스상품 프리미엄뉴스 뉴스리더 인터넷맞춤형 보도자료 해외배포 보도자료 국내배포

출판물 이메일 연합연감 영문연감 한국인물사전 단행본 월간 마이다스

광고 KTX 열차 AREX 공항철도 모바일 PC홈페이지 출판물

콘텐츠 판매 보도사진 이미지 그래픽 동영상 인물

관련사이트 연합뉴스TV 인포맥스 한민족센터 K컬처기획단(K-ODYSSEY) 채용 IR 클럽 #홍

개인사생활유문의

회사소개 윤리헌장 저작권규약 수용자권익위원회 모바일모니터링위원회 콘텐츠지문위원회 고충처리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독자기계서판 기사제보(02-398-3000) 사이트맵

연합뉴스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2길 25 | 등록번호 문화, 나00009 | 등록일자 1980.12.29 | 발행일자 1980.12.29 | Tel. 02-398-3114

(C) [대표이사] 성기홍 [편집인] 조채희  
Yonhapnews